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 연구 토론문

김신현경(서울여대 교양대학 / 여성학, 문화연구)

서론: 자연화된 젠더 이분법과 연기 노동의 재사유

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2024년 11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한 인터뷰를 소환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대학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24.11.18.일자, ‘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 어렵다…불법점거 책임 물을 것”)에서 공학 전환에 대한 예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 “공연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연극 등을 가르치는데, 남자 배역이 없는 게 불만족 요인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여학생이 남자 배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최근 연극계에서 논의되는 ‘젠더 프리’ 개념을 언급하자, 그는 “요즘 와서 여자가 남자 역을 하는 게 회자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남녀 간의 멜로를 연기할 때 여자가 남자 역을 한다면 연기하는 당사자 학생들도 약간 김이 좀 빠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짧은 발언은 한국 연기 교육 및 산업 현장에 깊이 뿌리박힌 자연화된 이원 젠더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성별과 배역의 일치가 ‘정상’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성애 로맨스, 즉 ‘멜로’가 연기의 핵심이라는 상정입니다. 셋째,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모든 연기가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성애적 남녀 간 로맨스’만은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해야 ‘진짜’ 연기가 된다는 모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이 빠진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연기자의 예술적 창조성보다 관습적 젠더 규범에 대한 순응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 연구가 다루는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수행 환경을 이해하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만약 “남녀 간 멜로”가 연기 교육과 산업의 중심이고, 그것이 생물학적 성별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면, 여러 구조적 귀결이 따라옵니다. 여성 배우는 필연적으로 남성 배우와의 신체적 접촉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구성되며, 이러한 수행은 “원래 그런 것”으로 자연화됩니다. 여성 배우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김이 빠지는” 사람, 즉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결국 젠더 규범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자연화된 구조 안에서 여성 배우들이 경험하는 안전 위협을 가시화하고, 그것이 개인의 ‘예민함’이 아닌 구조적 폭력임을 입증합니다. 더 나아가,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온 연기 노동의 젠더 정치학을 근본적으로 재사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덕여대 공연예술대학 관계자의 발언이 무심코 드러낸 것은, 한국 연기 산업이 여성 배우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당연한 자원으로 전제해왔는지에 대한 증거이며, 이는 본 연구가 폭로하는 현장의 안전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1. 연구의 의의와 강점

1.1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 작업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 전반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 배우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적 재현 장면에서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침묵의 영역을 정면으로 다루며,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당사자 관점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는 배우이자 연구자로서의 이중적 위치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의 구체적 경험들을 포착해냅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미묘한 권력 관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성적 연출, 그리고 이후 배우가 경험하는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이 모든 것이 당사자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개인의 몸과 정신을 관통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학적 증언입니다.

둘째,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 분석을 심화했다는 점입니다. 연구는 여성 배우가 경험하는 안전 위협을 단순히 특정 감독이나 제작진의 일탈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계의 고용 구조, 젠더 규범, 안전 담론의 협소함 등 구조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신인 배우의 취약한 고용 지위, 여성 배우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이미지(성적 대상이면서도 순결한), 안전 개념이 물리적 부상에만 국한되어 심리적·정서적 안전을 배제하는 방식 등이 모두 구조적 문제로 포착됩니다.

셋째, 실천적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연구는 문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 실무 지침 개발, 상담 체계 구축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조하면서도 한국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안들은 현실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2 방법론적 강점

본 연구의 방법론적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층적 참여자 구성을 통해 입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는 배우 8인, 스태프 6인, 상담원 1인 등 다양한 직군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당사자인 배우의 증언만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스태프들이 성적 재현 장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그리고 피해 배우를 상담하는 전문가는 어떤 패턴을 목격하는지까지 포괄합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문제의 복합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해결책 역시 다층적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장르 간 비교를 통해 제작 환경의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했습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는 각기 다른 제작 시스템, 예산 구조, 배우-스태프 관계, 그리고 안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르에서 여성 배우가 경험하는 안전 위협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합니다. 예컨대 연극의 경우 반복 공연으로 인한 지속적 노출, 영화의 경우 대형 스태프와 촬영 장비로 인한 감시 공간, 드라마의 경우 빠른 제작 일정으로 인한 안전 절차 생략 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셋째, 국제 비교를 통해 시야를 확장했습니다. 영미권의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가이드라인, 일본의 AV출연피해방지규제법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현장의 문제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선진 사례”를 모방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제도와 문화가 필요한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해외에서 작동하는

제도가 한국에서는 왜 저항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저항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 비교의 정치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2. 산업 구조 분석의 공백: 이론적 심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여성 배우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가시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드라마/영화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산업적 맥락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문제의 본질이 더욱 선명해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2.1 이미지 상품 체제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1990년대 이후 한국 연예산업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었습니다. Lukács(2010)가 일본 TV 산업 분석에서 제시한 ‘이미지 상품(image commodity)’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배우는 더 이상 연기 능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광고·잡지·리얼리티 쇼 등을 통해 구축한 특정 이미지를 중심으로 캐스팅되고 소비됩니다.

토론자는 2014년 연구에서 이 개념을 한국 맥락에 적용하여, 방송산업 구조조정, 외주제작 확대, 지상파-케이블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기획사 중심 체제가 형성되었고, 배우의 이미지 기획·관리·유통을 전담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확립되었음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김현경, 2014, 「기획사 중심 연예산업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여성학』 30(2), 53-88).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지 패러마켓(image para-market)’의 형성입니다. 이는 드라마나 영화 본편을 넘어 광고, 화보, 팬미팅, 굿즈 등으로 확장되는 파생 시장을 의미하며, 여성 배우의 몸과 이미지는 이 패러마켓에서 핵심 상품으로 기능합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 상품 체제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작품 안에서의 연기가 아니라, 이미지 패러마켓 전체에서 소비되고 재유통될 것을 전제로 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성적 재현 장면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플랫폼에서 캡처되고 편집되어 무한히 재유통되며, 이는 배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2차, 3차 착취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구자께서 인터뷰하신 여성 배우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드라마/영화 본편을 넘어 어떻게 유통·소비되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는지, 특히 성적 재현 장면이 플랫폼에서 캡처·편집·재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셨는지를 추가로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2.2 젠더화된 이중 규범과 ‘국민 여동생’ 이미지

본 연구는 여성 배우에게 요구되는 “성적 대상이면서도 순결한” 이중적 이미지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특히 사례 H의 “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꼬리표”는 이러한 이중 규범이 배우 개인에게 어떤 낙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형성된 ‘국민 여동생’ 이미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토론자는 2016년 한국 걸 아이돌 분석에서 ‘국민 여동생’ 이미지가 소비사회와 광고 산업의

확대와 맞물려 형성된 젠더화된 관계 프레임임을 밝힌 바 있는데(김현경, 2016, 「아이들을 둘러싼 젠더화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의 문화정치학: <아이유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0, 115-142), 이는 여성 배우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이 프레임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안전장치로 포장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흥미로운 점은 ‘물리타’의 용인과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배제라는 비대칭성입니다. 남성 시선에 의해 구성된 성적 이미지는 허용되지만, 여성 배우 자신이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표현하면 샤덴프로이데(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불공정한 자원 획득”이라는 여성혐오적 프레임으로 성공한 여성 배우를 공격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본 연구의 사례 H(“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배우는 소모되고 소비됨”)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당사자의 언어로 증언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적용한다면, 본 연구의 인터뷰이들 중 “성적 재현을 한 이후 대중이나 업계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지, 특히 배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이미지로 고착되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넘어, 성적 재현이 배우의 경력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 K-드라마 복합체(K-drama conglomerate)와 배우의 구조적 취약성

본 연구가 지적하는 “고용 불안”과 “안전 위협”은 현재 드라마 제작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송사 내부의 수직 통합 체제가 해체되고,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스태프가 프로젝트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연화(flexibilization)된 제작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토론자는 2020년 연구에서 이를 ‘K-드라마 복합체(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스태프가 프로젝트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연화된 제작 구조) 개념으로 이론화한 바 있습니다(Kim, Hyun Gyung, 2020, “The Korean Wave celebrity and the birth of the K-drama conglomerate”, *East Asian Journal of Popular Culture* 6(2), 223-238).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드라마 제작에 금융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배우의 스타성이 투자 유치의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 특히 한류 스타는 단순한 이미지 상품을 넘어 고정자본(fixed capital)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즉, 배우의 이미지가 투자금을 유치하고 제작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타 중심 체제는 역설적으로 노동의 비가시화를 초래합니다. 드라마의 가치가 스타 배우에게 집중되면서, 제작 스태프, 조연급 배우, 엑스트라 등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비가시화됩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신인 및 중견 여성 배우의 취약성은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투자 유치 능력이 없는 스타급이 아닌 배우는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되며, 기획사-제작사-방송사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배우, 특히 매니지먼트 없는 배우의 협상력은 극히 취약합니다. 제작 일정과 수익성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배우의 안전과 권리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본 연구의 사례 C(리허설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성관계 장면)와 사례 K(과도한 NG)는 이러한 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배우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분석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의 사례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매니지먼트 유무에 따라 성적 재현 수행 환경이나 협상 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한 작품의 예산 규모(대작 vs 저예산, OTT vs 지상파 vs 숏폼)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면, 안전 위협이 어떤 조건에서 더 심화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이 중요하다”는 당위적 주장을 넘어, 어떤 제작 환경에서 어떤 개입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현장 증언의 구조적 해석: 주요 발견에 대한 심화 토론

본 연구가 수집한 여성 배우들의 증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을 단순히 개별 사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작동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더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 장에서는 연구가 포착한 주요 발견들을 이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추가적인 분석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1 “간절함”의 정치학: 구조적 강요의 감정적 전환

본 연구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이 여성 배우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모순적 인식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잘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간절함”이라는 감정 언어가 어떻게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심리 문제로 전환시키는지 더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N의 “선택권이 없었다”는 진술은 사실상 강요된 선택을 의미하는데, 이를 배우의 “간절함”으로 프레임하는 순간 구조적 폭력이 은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산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자발성” 담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마치 온전한 자유의지의 산물인 양 해석함으로써, 그 선택을 강요한 구조적 조건을 비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함으로 위장된 구조적 강요” 또는 “선택의 환상” 같은 개념화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성 배우가 성적 재현을 수용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과 경력 기회의 제한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내린 강요된 선택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단순히 학술적 정교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향을 개인의 태도 변화에서 구조 개혁으로 이동시키는 정치적 함의를 갖습니다.

3.2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소비”와 “소모”: 무한 착취 구조

본 연구의 사례 H(“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꼬리표”)가 보여주는 “소비”와 “소모”의 메커니즘은 낙인이론(stigma theory)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역할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OTT, 유튜브, 포털 등 디지털 플랫폼은 특정 장면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재유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알고리즘은 선정적 콘텐츠를 우선 노출합니다. 이는 배우 개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2차, 3차 착취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이미지 패러마켓의 가장 극단적 형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본편에서의 1회적 수행이 플랫폼을 통해 무한 복제·유통·소비되는 구조 속에서, 여성 배우의 몸 이미지는 원본 맥락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성적 스펙터클로 소비됩니다.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서사적 맥락은 사라지고, 오직 “노출 장면”만이 반복 재생되고 공유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동시에 “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낙인이 고착

화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촬영 현장의 안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규제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배우의 동의 없이 특정 장면을 맥락에서 분리하여 유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 알고리즘이 선정적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규제, 그리고 배우가 자신의 이미지 유통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개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3.3 젠더화된 안전 개념: "진짜" 행위 강요의 이중 잣대

사례 D의 경험, 즉 교수가 키스신을 “진짜로 하라”고 지시한 경험은 메소드 연기의 왜곡된 적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안전 개념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본 연구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폭행 장면은 “아프지 않게” 하도록 지도하면서 키스신은 “진짜로” 하라고 요구하는 이중 잣대가 작동합니다. 이는 여성의 심리적 안전을 안전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젠더화된 안전 개념을 보여줍니다.

왜 신체적 부상은 위험으로 인식되지만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은 위험으로 고려되지 않을까요? 이는 안전(safety)의 개념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위험 중심으로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멍이 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진짜” 위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의 경계와 불편함은 “예민함”으로 재해석되는 담론적 전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담론에서 작동하는 “농담”과 “과민반응”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가해 행위는 “그냥 농담”이나 “예술적 필요”로 정당화되고, 피해자의 불편함은 “과민반응”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재규정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안전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안전은 단순히 물리적 부상의 부재가 아니라, 심리적 존엄과 자율성의 보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재현 장면에서 배우의 심리적 경계가 존중받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안전의 기본 조건입니다.

3.4 점진적 경계 침해: 의도와 무감각의 공모

사례 F(바나나), 사례 E(달리기 장면), 사례 G(의상) 등은 성폭력 및 성희롱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점진적 경계 침해(incremental boundary violation)의 전형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명시되지 않은 성적 연출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배우가 거부하면 “예민한 배우”로 낙인찍히며, 편집 과정에서 성적 뉘앙스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이러한 “점진적 침해” 전략이 의도적 기만인가, 아니면 제작진의 무지나 무감각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례 E에서 제작진이 배우의 곤란한 상황을 보고 “재밋게” 웃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도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사례 G에서 여성 연출부조차 감독의 의도를 몰랐다는 점은 소통 부재도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성 여부와 무관하게 두 경우 모두 여성 배우에게 동일한 피해를 준다는 점이며, 따라서 개인의 의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의 의무화, 대본에 명시되지 않은 연출 변경 시 배우의 명시적 동의 절차,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착한” 감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독이든 간에 배우의 경계가 자동으로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3.5 안무화된 인티머시: 예술성과 안전의 거짓 대립

사례 C(성관계 장면)와 사례 K(키스신 30초를 위한 과도한 촬영)는 효율성과 안전의 균형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발견도 담고 있습니다. 사례 K는 “배우의 연기 호흡”을 위해 컷 없이 촬영했다가 오히려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부담을 준 경험으로, 이는 “예술적 완성도”가 안전과 상충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실증적으로 반박합니다.

인티머시 신의 “안무(choreography)” 개념이 예술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종종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션 실무 가이드라인(Rodis, I., & Pace, C., 2020, *Staging Sex: Best Practices, Tools, and Techniques for Theatrical Intimacy*, Routledge)이 제시하듯, 싸움 장면은 철저히 안무되고 리허설되지만 그것이 예술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계획과 반복 연습이 배우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그 안정 속에서 더 나은 연기가 나옵니다. 본 연구의 사례 B(퍼포먼스)가 보여주듯, 배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무화된 인티머시는 예술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적 창조를 위한 안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술과 안전의 대립 구도 자체가 허구이며, 실제로는 안전이 더 나은 예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취약성의 교차와 증폭: 안전 위협의 구조적 조건

본 연구가 밝힌 안전 위협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안전 위협이 더 심화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는 무엇인지를 보다 심화 분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 교차적 취약성과 스포츠 드라마의 “착취 인큐베이터” 효과

사례 G의 “어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진술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력(신인), 나이(젊음), 성별(여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다층적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신인 남성 배우와 신인 여성 배우가 경험하는 취약성은 같지 않으며, 중견 여성 배우와 신인 여성 배우가 직면하는 위협의 양상도 다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특정 제작 환경에서 더욱 증폭됩니다. 본 연구가 지적했듯이, 최근 급증하는 스포츠 드라마는 저예산으로 매니지먼트 없는 배우를 고용하고, 빠른 제작 일정으로 안전 절차를 생략하며, 선정성에 의존하여 조회수를 올리려 하기 때문에 성적 재현이 빈번합니다. 이는 스포츠 드라마가 “착취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위험을 보여줍니다.

앞서 논의한 K-드라마 복합체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 드라마는 이 구조의 가장 취약한 말단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아 스타급 배우를 캐스팅할 수 없고, 따라서 신인이나 무명 배우를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선정성으로 조회수를 올려야 하지만 안전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드라마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규모에 따라 안전이 차등 배분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드라마 산업의 젠더·노동 실태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품질 관리 및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하거나 공급받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4.2 이미지 상품-주체의 딜레마: 수단화와 해리

본 연구가 포착한 “배우로서의 나”와 “불편함을 느끼는 나”의 분리는 해리(dissociation)와 유사한 심리 기제입니다. 연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침해받으면서도 제작진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규범의 압력은, 여성 배우들로 하여금 몸 이미지의 개별성이 삭제되고 남성의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환원되는 것과 유사하게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이미지 상품-주체의 딜레마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여성 배우는 자신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생산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이미지에 종속되며, 결국 사례 C가 증언하듯 “감정의 원료”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수단화가 배우의 정체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사례 A의 공황장애와 드라마 기피, 사례 H의 영화 거부는 단순히 개인적 트라우마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심신에 새긴 상처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트라우마 인지 접근법(trauma-informed approach)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적 치료만이 아니라, 애초에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배우를 “감정의 원료”나 “작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작의 주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4.3 젠더화된 감정노동과 “공유 자원”으로서의 여성 배우

본 연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베드신 촬영 시 여성 스태프를 배치하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이 없으며, 오히려 남성 스태프의 비협조나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M은 “여자 스태프들은 오히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오히려 더 궁금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첫째, 안전 업무의 젠더화입니다. 여성 배우를 돌보는 일이 여성 스태프의 “본성”으로 치부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감정노동의 비가시화입니다. 배우의 심리를 케어하는 것이 “배려”로 여겨지지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임금이나 커리어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남성 저항의 메커니즘입니다. 남성 스태프들은 안전 조치를 “범죄자 취급”으로 프레임하며 안전 조치 자체를 공격합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K-드라마 복합체 내 노동의 비가시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타 배우의 이미지가 고정자본처럼 기능하면서 제작 스태프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비가시화되는데, 특히 여성 스태프의 감정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도,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왜 남성 스태프들은 안전 조치를 “배제”로 인식할까요? 한 가지 가설은, 남성 중심 작업 문화에서 여성 배우가 “공유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안전 조치는 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따라서 특권 박탈로 경험됩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안전을 “여성 특혜”가 아닌 “전문성의 기본 조건”으로 재프레임해야 합니다. 둘째, 남성 스태프 대상 교육에서 “당신도 더 나은 작업

환경의 수혜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를 전문 직군으로 확립하여 젠더 이슈가 아닌 직무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자”는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드는 전문성의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실천적 대안의 구체화: 제언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본 연구가 제시한 제언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저항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1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 단계적 전략과 인식 전환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은 해외 사례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사례 M이 지적했듯이, 한국 현장의 “감수성”과 괴리될 위험, “베드신에만 필요한 사람”으로 협소하게 인식될 가능성, 그리고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도입 저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자원이 있는 대형 OTT 제작사에서 의무화하고, 2단계로 공공 제작 지원금을 수혜받는 작품으로 확대하며, 3단계로 성적 재현 비중이 높은 모든 작품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고, 기존 스태프에게 전환 교육을 제공하여 일자리 확대 프레임으로 접근하며,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예술성과 안전이 대립한다는 허구적 이분법을 해체해야 합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예술을 제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더 나은 예술을 위한 전문 협력자임을 현장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5.2 실무 지침의 실효성 확보: 법적 구속력과 모니터링

본 연구가 제안한 실무 지침은 키스신뿐 아니라 의상, 앵글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 산업 자율 규제, 재정적 인센티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지침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영화인협회나 드라마제작사협회 등의 윤리강령에 포함시키며, 지침을 준수하는 작품에 제작 지원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실효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촬영 완료 후 배우를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 위반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재범 제작사나 감독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준수 여부가 실제로 확인되고 결과가 따르는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5.3 담론장 확산: 학술-현장-대중의 삼각 연대

담론장 확산은 중요하지만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술-현장 연계 플랫폼을 통해 문화연구자, 현장 활동가, 배우와 스태프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정책 제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장 기

반 교육으로는 대학 연극영화과 커리큘럼에 안전 실무를 필수화하고, 제작사에 성폭력 예방뿐 아니라 인티머시 신 제작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배우 노조나 협회가 주도하는 워크숍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대중 담론 개입도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정적 헤드라인을 지양하고, 관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평 담론을 노출 중심에서 연기력과 서사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론의 변화는 제도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문화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5.4 문화예술인 특화 상담 체계: 긴급한 안전망 구축

현재 피해를 경험한 배우가 갈 곳이 없다는 점에서 상담 및 정책 개입의 긴급성은 매우 높습니다. 문화예술인 특화 성폭력 상담소는 전문성, 접근성, 사후 지원, 예방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원은 문화예술계 경험과 성폭력 전문 교육을 겸비해야 하고, 법률 자문은 계약법,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심리 상담은 트라우마와 경력 단절로 인한 우울 등 문화예술인 특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담으로 신원 노출 부담을 경감하고, 24시간 핫라인으로 촬영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서울 집중을 탈피해 지역별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후 지원으로는 법적 대응 지원(변호사 연결, 소송 비용), 캐스팅 보복으로 수입이 단절되었을 때의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연계, 경력 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방 기능으로는 위험 제작사나 감독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고,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담 체계는 단순히 피해 사후 대응이 아니라, 배우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6.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확장의 가능성

연구자께서 밝히신 대로, 장르별 제작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성적 재현 수행 이후 산업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연구과제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주제이며, 오히려 후속 연구의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본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부분 30대 서울 기반 배우들로, 세대별 비교(20대 신인과 40-50대 경력 배우의 경험 차이), 지역 격차(서울과 지역 제작 환경의 차이), 그리고 장르 확장(뮤지컬, 웹드라마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남성 배우와 퀴어 배우의 경험 연구입니다. 남성 배우 역시 성적 재현을 수행하지만 그 경험은 여성 배우와 어떻게 다르며, 퀴어 배우의 경험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제작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감독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지인가 의도인가 관행인가, 그리고 예술적 자율성과 배우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넷째, 관객 연구입니다. 관객이 성적 재현을 어떻게 소비하며, 배우에 대한 낙인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페미니스트 관객은 어떤 딜레마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분석으로 안전 조치의 비용-편익,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고용이 제작비에 미치는 실제 영향, 슷품과 장편, 저예산과 대작 간 안전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법제도 비교 연구를 통해 일본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의 실효성과 영미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단 연구를 통해 성적 재현 수행 경험이 배우의 경력 궤적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미투 이후 세대 간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본 연구가 놓은 토대 위에서 문제의 다층성을 더욱 정교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맺음말: 구조 변화를 위한 첫걸음

본 연구의 생생한 증언들은 다음 단계의 이론화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미지 상품 체제와 K-드라마 복합체, 그리고 젠더화된 산업 구조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산업 구조 변화가 성적 재현 수행 환경에 미친 영향, 금융화 이후 배우가 투자 유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형성된 위계적 안전 환경, 그리고 '국민 여동생' 같은 이미지 규범이 성적 재현 강요로 이어지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단순히 학술적 정교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개입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연구 확산 전략도 필요합니다.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웹툰이나 그래픽 요약본, 유튜브 애니메이션, 팟캐스트 등 대중적 버전을 제작하고, 국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정책 브리프를 만들며, 제작진용 체크리스트와 배우용 자기옹호 가이드 같은 현장 워크북을 개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을 상상해봅니다. 모든 성적 재현 신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배치가 당연시되고, 배우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즉시 조정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여성 배우의 몸 이미지가 작품과 분리되어 소비되지 않는 관람 문화가 형성되고, 배우가 “간절함”이 아닌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이 연구가 제기한 질문들, 수집한 증언들, 제안한 대안들이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개선으로, 그리고 문화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